

## 교회소식

### ◆ 광고

- 오늘 오후 예배 찬양은 글로리아 찬양대입니다. (연습 2시, 소망관)
- 전교인수련회를 위해 많은 기도와 참석 부탁드립니다.
  - ①일시 : 2014년 8월 4일(월)~6일(수) 2박 3일
  - ②장소 : 안면도청소년수련원
  -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수거함에 반드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수련회비는 김금분 전도사에게 내어주시면 됩니다.
- 신일 한마음 기관별 성가합창대회 - ①일시 : 7월 20일 오후예배시간
- ②각 기관(전도회, 교육기관)들은 열심으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비는 정기훈 강도사에게 내어주시면 됩니다.
-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을 6월 30일 까지 연합여전도회에서 합니다.
-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헌미통은 1층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 ※ 교인동정

- 생일 축하합니다 : 현영준

### ※ 교회 기도제목

- 영혼구원하고 제자삼는 교회 되게 하소서.
- 신일교회에 큰 부흥이 있는 한 해 되게 하소서.
- 교회의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 되게 하소서.

### ◆ 모임/청지기 안내

다음주일새벽찬양	금주 수요찬양	오늘 식사봉사	목장성경공부	전도특공대	중보기도학교	새가족성경공부
제 1남전도회	여 15, 16목장	제6여전도회	금요일 오후 7:30	수요일 오전 10:00	목요일 오전 10:30	주일(2부예배후)(각교실)

### ◆ 6월 행사

- 1일 : 신일비전현신예배, 정기제직회
- 8일 : 각 기관 월례회
- 15일 : 교사현신예배
- 29일 : 정기당회

◆ 6월 안내위원 1부 : 박영숙A, 임희자 2부 : 권유순, 정영주

◆ 6월 헌금위원 1부 : 박영숙A, 임희자  
2부 : 박순국, 오승엽, 박유연, 소재억, 이진석, 객복님, 이정자

## 새 가족

번호	성명	목장	인도자	주 소	전화	소속기관
	김빛나	18목장		중구태평로 버드네아파트 204-1204호	010-3445-5713	9여전도회

## 주일낮예배

1부 : 오전 9시 인도 안 주 모 목사  
2부 : 오전 11시 설교

♣ 사도신경..... 다같이

♣ 찬 송 ..... 다같이  
새40장(구43장)  
새274장(구332장)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기 도 ..... 1부/박권용 장로  
2부/김제곤 장로

성경말씀 ..... 인도자

역대상 29:10~19 (구 P653)

찬 양 ..... 1부/호산나 찬양대  
2부/할렐루야찬양대

말씀선포 ..... 설교자

정직한 신앙

기 도 ..... 설교자

찬 송 · 새429장(구 489장) ... 다같이

헌 금 ..... 다같이

감사와 축복 ..... 인도자

♣ 찬 송 ..... 주기도문송 ..... 다같이

♣ 축 도 ..... 담임목사

광 고 ..... 담임목사

✚ 다음주 기도 1부 / 우성한 장로  
2부 / 박근용 장로

♣ 표는 일어나 주십시오

## 주일오후예배

오후 3시 인도 최사무엘 목 사  
설교 정 기 훈 강도사

예배선언 ..... 인도자

다함께 찬양을...

기 도 ..... 정인택 집사

성경말씀 ..... 인도자

창세기 27:1~4(구 P37)

찬 양 ..... 글로리아 찬양대

말씀선포 ..... 설교자

민음의 동역자

찬 양 · 새430장(구456장) ... 다같이

광고/축도 ..... 인도자

✚ 다음주 기도 / 김준렬 집사

## 수요기도회

오후 7:30 인도 안 주 모 목사  
설교

목 도 ..... 다같이

찬 송 · 새310장(구410장) ... 다같이

기 도 ..... 김선옥 집사

성경말씀 ..... 인도자

고린도전서 15:9~11(신 P282)

말씀선포 ..... 설교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목장찬양 ..... 여 15, 16 목장

축 도 ..... 인도자

기 도 회

✚ 다음주 찬양 / 여 17, 18 목장

✚ 다음주 기도 / 임희자 집사

Since. 1978

No 25. 2014. 6. 22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대전신일교회

금년목표 : 지역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교회(고후 5:17)

1. 전파하는 교회(전도, 선교)
2. 가르치는 교회(교육, 훈련)
3. 치료하는 교회(예배, 상담)
4. 봉사하는 교회(섬김, 나눔)

### ◆ 교회를 섬기는 분 ◆

담임목사 안주모  
부 목 사 최사무엘 최영준  
전 도 사 김금분 정기훈  
장 로 김제곤 강일창 박권용 우성한 김명권 양문주  
남동균 원용국 박근용 안재경  
은퇴장로 이수영 정길원 정태수 윤선옥 우호선 김종남

찬양지휘 이옥영 송명남 정기훈 윤현덕 조양순  
반 주 조성일 김진영 강경숙 김애숙 박채리 조수정  
기 악 윤현덕 김성욱 남정아 박채원

300-825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517번길 14(용전동)

TEL. (042) 622-7724(교회) 625-7724(목사관) 625-7723(당회실)

FAX. (042) 624-7721 www.no1shinil.org

## 초 대 합 니 다

### 1.신일교회는 주님의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변화와 성숙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 아픈 곳을 치료하는 교회, 섬김으로 봉사하는 교회로서 세상과 이웃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날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 2.신일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입니다.

지역사회와 연대를 가지고 구제와 장학사업 등 사회복지에 힘쓰며 가정사역, 치유사역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데 중점을 두어 세상의 빛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3.신일교회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 주역인 자녀들을 위해 교사정예화와 다양한 커리큘럼 개발을 통해 교육현장을 혁신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젊은이를 위한 찬양예배 활성화와 새가족양육, 부부성경공부, 제자훈련 등 각종 평신도 훈련과정을 통해 건강한 교회 만들기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담임목사 안 주 모

## 예 배 시 간

예 배	주 일 낮 예 배	1부/오전 9시, 2부/오전 11시	본 당
	주 일 오후 예 배	오후 3시	본 당
	수 요 기 도 회	동절기/저녁 7시, 하절기/저녁 7시30분	본 당
	새 벽 기 도 회	새벽 5시	사 랑 관
		새벽 6시	사 랑 관
제 자 교 육	심 야 기 도 회	수요기도회 후	본 당
	수 요 전 도	수요일 오전 10시	소 망 관
	중 보 기 도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사 랑 관
	목 장 성 경 공 부	목장별로	각 교 실
	새가족성경공부	2부예배 후	각 교 실
주 일 학 교	유 치 부	주일 오전 9시	사 랑 관
	초 등 부	주일 오전 9시	교육관 1층
	초 등 부 오후예배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2층
	중 고 등 부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1층
	청 년 말 투 스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2층

## 우리가 돕는 교회 및 기관

- 1. 협력선교사** : 인도/윤지원, 터키/곽동신, C국/오성학, 국내이주민/김복경, C국/하요한, 필리핀/박원재, 프랑스/박신희, 아르헨티나/윤춘식, 파라과이/이태호, 러시아/배성운, 국내선교부/남후수, 미얀마/김민, 태국/정규호, 차양마이/인턴벳방송, 필리핀 추수선학교/오일환, 인도구조르트/전미숙
- 2. 미자립교회** : 의령삼일교회/의령, 덕신영광교회/울주, 지탄사랑교회/영동, 놀인교회/청송, 원당교회/영동, 아하교회/대전, 십자성교회/해운대 군인교회, 뽕엘교회/창원 군인교회, 힐령교회/김해
- 3. 학원선교** : 대전충청지역 S.F.C, 간사/이성운 김예정
- 4. 기관선교** : 극동방송국/대전, 웅달생드롭민센터/서울, 북한어린이 사랑의 빵/한민족복지재단, 고신장학회
- 5. 문서선교** : 기독교보사, 월간고신사, 코람테오닷컴사

## 향기로운예물

### ✦ 십일조헌금

강철원(이지영),김금분,김성영,김영민(함현숙),김진승(윤라미),김진운(김남주),김춘복,노시래(구남량),박상임,박석문(정인선),박영숙A,박유연,박채리,송정희,신금순,신동영(강경숙),이문희,이선환,이성자,이승민(염서운),이재익(김애숙),이혜숙,장재화(김덕연),전양순,정기훈(최연옥),정길원(정채순),정인택(이정숙),채재규,최서우엘(서남지),최영준(한은정),최원나,함돈수(곽정자)

### ✦ 감사헌금

강일창(고숙자),강철원(이지영),강춘자,김금분,김영권(정영주),김영순A,김재홍(한영자),김재근(한영실),김종남,김진운(김남주),김춘복,남희중,노시래(구남량),박권용(곽복남),박근용(최원자),박상임,박석문(정인선),박순국(조수정),박은정,박해진,소재익(김미화),신소자,안재경(정은숙),안주모(조양순),양문주(권유순),오승엽(김영희),오정석(정주희),왕용국(김복국),이승민(염서운),이재익(김애숙),장재화(김덕연),정기훈(최연옥),정길원(정채순),정영국(이영미),최서우엘(서남지),최성미,함돈수(곽정자),무영

### ✦ 선교헌금

강철원(이지영),김금분,김영민(함현숙),김춘복,노시래(구남량),박상임,박석문(정인선),박성용(이혜운),박유연,박해진,신소자,이승민(염서운)

### ✦ 일천번제헌금

김건국(성옥/도희),박유연,안스디(자민,안영원(영민/혜린),안재경,양문주(권유순),이승민(염서운),이영일(홍은미),이재현(다희),장은숙(소연/진형/진성),무영

### ✦ 비전헌금

강철원(이지영),김춘복,노시래(구남량)

### ✦ 목적헌금

김종남, 박범진(김빛나)

### ✦ 장학헌금

신동영(강경숙)

## 목장현황

2014. 6. 9~6. 15

초원	목 장	모인곳	출석	헌금	성경	다음장소	초원	목 장	모인곳	출석	헌금	성경	다음장소
남1초원	1 김종남	교 회	5	12,000	10	교 회	03초원	5 김채욱	정분희	4	8,000	75	교 회
	2 강일창	교 회	2	8,000		교 회		6 고숙자	정분희	3	9,000	30	교 회
남2초원	3 박근용	교 회	1	5,000	3	교 회	04초원	7 곽복남	교 회	1	5,000	10	교 회
	4 김명권	교 회				교 회		8 성영옥	교 회	1	10,000	50	교 회
남3초원	5 남동근	교 회	1	5,000	77	교 회	05초원	9 구남량	교 회	4	11,000	20	교 회
	6 안재경	교 회	1	5,000	30	교 회		10 정혜민	교 회	1	5,000	20	교 회
남4초원	7 오승엽	교 회	2	5,000	20	교 회	06초원	11 함현숙	교 회	1	5,000	25	교 회
	8 박순국	교 회	1	5,000	4	교 회		12 김복국	교 회	3	10,000	80	교 회
남5초원	9 조성철	교 회	1	5,000	3	교 회	07초원	13 정옥자	교 회	3	5,000	70	교 회
	10 이인호	교 회	2	5,000	8	교 회		14 이경미	교 회				교 회
여2초원(실버)	1 김명자	교 회	4	23,000	100	교 회	08초원	15 신윤경	교 회	3	10,000	17	교 회
	2 김명숙	교 회	3	7,000	22	교 회		16 김춘복	교 회	2	10,000	5	교 회
여2초원(실버)	3 권월성	교 회	3	11,000	120	교 회	09초원	17 한은정	교 회	3	6,000	30	교 회
	4 정채순	교 회	4	12,000	180	교 회		18 서남지	교 회	5	4,000		교 회

## 금주의 말씀

### 정직한 신앙

역대상 29:10~19

오늘 본문에서 다윗 왕이 성전건조를 위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나의 하나님이며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소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정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이 정직에서 찾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직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 1.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것이 정직한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바로 섬기는 것이 정직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신랄하게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앙이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입술로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한다고는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멀었습니다. 정직한 신앙은 내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직한 신앙은 나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주권"이란 주인 되는 권리라는 말로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주인이요, 마음대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알짜이 다윗은 이런 사실을 깨닫고 대상 29장 11절에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신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들은 이 세상에 와서 얻게 된 것들입니다. 우리가 만들거나 우리가 있게 한 것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들은 단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우리에게 속하다가 죽고 나면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된다는 말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은 정말 잠깐 동안만 우리 품에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가 잠시 보관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등기가 내 이름으로 되어있어도 진정한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입고 있는 것, 내 이름으로 되어있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주인이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분께서 주권을 행사하시도록 주권을 돌려드립니다. 그 결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도록 해 드리는 것입니다.

### 2.자기 자신을 바로 깨달아하는 것이 정직한 신앙입니다.

본문 14-15절을 보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인가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가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가류민들이고,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는 존재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다. 다윗은 자신과 백성들의 신분이나 너무나 미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성전 건축과 같은 위대한 사업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고백민들과 같은 인생은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에 비하여 이 땅에서 사람의 인생은 보잘 것 없이 지극히 짧은 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신과 인생의 정체성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고 했습니다. '속아시는 세상' 또는 '속아시는 인생'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과연 속아 사는 인생임에 틀림없습니다. 사람에게 속고, 내일에게 속고, 마귀에게 속아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모든 거짓말 중에서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보다 더 큰 거짓말이 없고, 모든 속임수 중에서 자신을 속이는 속임보다 더 불행한 속임은 없습니다. 왜 자신을 속이고 삽니까? 그 이유는 자신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모든 지혜가 자신에게서 나온다는 착각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 3.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감사하는 것이 정직한 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 정직한 신앙입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배은망덕한 거짓된 신앙입니다. 감사드리는 자는 받은 은혜에 보답이라는 자세로 감사 드려야 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주의 손에, 또 주께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내 것을 드리는 줄 알면 힘듭니다.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하여 보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인가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기서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인가에"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는 발을 자각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큰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자각도 없는데 큰 물질을 주셨습니다. 자각도 없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은혜에 대한 보답임을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도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드리는 줄로 아가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다 떨어 버려야 합니다. 버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즐거움으로 보답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구구절절 감사하며 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울 형편이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배부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양식을 주신 정말 좋은 하나님께, 우리를 죄와 마귀의 저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절기는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감사하는 민족입니다. 감사의 절기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 하나 헤아려 보면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건강하고, 혹병을 앓아도 여전히 생명이 있고, 혹 가난하고 공핍해도 최소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가져할 데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은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신앙의 터전인 교회가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추감사절입니다. 맥추절은 지난 6개월 동안도 우리를 하나님께 은혜 중에 지켜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물찬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 상황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 잠시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길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래가 불안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 당연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감사해야 할 상황과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대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대실론이나 전서 5장 18절에서 번사에 감사하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